

한가지만 분명하면 된다.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방향을 맞추어지는 것이다.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다(빌3:12). 나의 올해가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이 맞추어진다면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.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(마6:33). 올해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축복한다.

**그러면 하나님 소원은 무엇인가?** 모든 인생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(요3:16),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다(딤후2:4). 그 길은 그리스도가 이루셨다(요14:6).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살려서,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,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것이다(사60:1-7).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. 이 말씀을 3주 동안 생각할 것이다.

**그 첫 번째인 오늘 제목이 “하나님 계획의 시작은 나다”이다.** 무슨 말인가? 또 나 중심으로 가라는 말인가?

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다(만물의 근본, 생명의 근본, 축복의 근본, 능력의 근본). 그 분이 창조자이시고, 그 분이 축복을 주시고,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분께로 나와서, 그 분께로 말미암고, 그 분께로 간다(롬11:36).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다. 그 시작은 “나”다.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다. 그것이 본문이다.

축복의 시작도 “나”다. 그래서 내가 축복 받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같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(창39:5의 요셉) 응답의 시작도 “나”다. 내가 응답 받으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도 그 응답이 전달된다. 그들이 나를 모델로 삼아 기도하다가 같이 응답 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응답 받은 내가 나누어주면 된다.

변화의 시작도 “나”다. 내가 변화되면 변화되지 마라고해도 내 주변의 사람, 분위기(흐름), 환경까지 바뀌게 된다.

**올해 “RUTC 운동의 모델”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다.** 내가 램넨트 살릴만큼 훈련받고, 응답받고, 헌신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, 그때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“운동”이 되는 것이다.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?

**1.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사랑부터 깨달으라(1절).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는가?**

1) **“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”.**

야곱은 욱심 많고, 거짓과 인본주의로 실패할 때의 이름이다. 그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다.

2) **“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”.**

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의미한다.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.

하나님이 선택하고, 하나님이 부르시고,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다. 내 행위가 아닌 일방적 은혜이다(엡2:8-9)

3) **그 은혜 속에 있다면 어떤 환경,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.**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?

먼저는 죄의식에서 온다(창3:10).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. 빨리 갱신하고 회개하면 된다.

여러 위협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도 온다. 올해도 우리가 강을 지나고, 불을 지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.

① **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이다.** 왜 인가? 구원받은 내가 그 분의 것이고, 그래서 그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.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가고 망하게 할 수가 없다(요10:28-29).

② **“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”는 표현이 있다.** 한 사람씩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. 개인적으로 기억하고, 더 중요하게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. 우리 각자의 형편을 아시고, 각 개인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랑의 표현이다.

③ **그래서 4절에 “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(보물처럼), 존귀하게 여기며(VIP처럼), 너를 사랑하였다”고 했다.**

아무리 사랑해도 앞의 두가지가 안 되면 사랑이 아니든지 부족한 사랑이다. 사람은 이 사랑이 어렵다.

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다(롬5:8).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다

**2.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?**

1) **그 분의 절대적인 계획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.**

온통 세상 것에 빠져 살다 보니까, 또 거기서 계속 상처를 받고 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.

① **그 찾는 시작이 뭐냐?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감사하라.**

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선택되고, 부름 받아 구원 받은 것이다. 전도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, 모태로부터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더 큰 축복이다.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다.

② **평상시에, 모든 문제 사건에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생각할 것과 묵상해보라.** 바로 내 이 문제, 이 고통, 이 실패 때문에 그 분이 친절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다.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것이 갈보리 체험이다.

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고 붙잡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참 사랑이 아니다. 결국 내 기준과 내 욱심을 위한 사랑이 된다. 오직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사랑이 참 사랑이다(고후5:13-14)

2) **그 속에서 그 분을 위한 내 인생 목표를 찾으라.**

① **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, 잘 할 수 있는 일도 많다.**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.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라.

한가지 절대 목표가 있어야 한다. 그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(고전10:31).

7절에 “그 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”이라고 했다.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, 올해의 변함 없는 목표다.

② **지금 내 환경, 내 문제, 내 환경에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나의 일을 찾으라.**

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 것이다.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.

주어진 일을 한 것이다. 불평, 원망은 찾아 볼 수 없었다.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성이라고 한다.

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찾으라.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정하게 된다. 그렇게 하는 것을 필연성이라고 한다.

어느날 내가 당연하고 필요로 해서 한 작은 일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. 그것을 절대성이라고 한다.

이것을 가정에서 해보고, 직장 학교에서 해보고, 교회에서 해보라. 내가 찾아서 말없이 해보라. 참된 헌신이다.

3) **반드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나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.** 영적 써밋이 되고, 모든 것의 써밋이 되는 길이다.

나를 찾고, 나의 할 일을 찾고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각자의 한계와 상처, 사단의 방해 때문이다.

① **나의 말씀 각인의 방법을 찾아 실천해라.**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각인 되어야 응답도 받는다(요15:7)

말씀이 각인 되어야 치유도 받고(히4:12), 힘도 얻고(시107:20), 그때 천사를 보내어 일하신다(시103:20)

② **나의 기도 뿌리내리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라.** 내 평생 이 훈련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영적 문제, 쓴 뿌리가 해결 안 된다(히12:15, 막9:29). 올해 내 인생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해로 만들어보라(계8:4)

③ **나의 전도 체질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(5-6절). 북방과 남방의 묶인 자(흑암에)들이 오는 것이 전도요, 땅끝에서 오는 것은 선교다.**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전도와 선교가 체질되면 그것이 완성이다(마24:14)

**결론-**나를 찾고, 나의 할 일을 찾고, 그 힘을 얻는 방법을 찾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한다